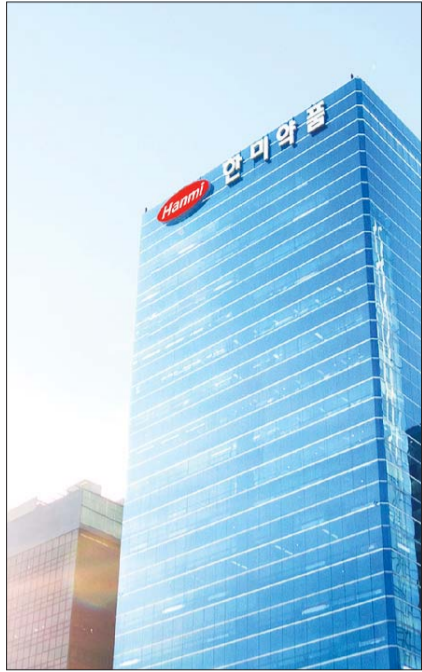


# 한미약품 '모녀' 손 든 국민연금... 소액주주 표심에 달렸다

경영권 분쟁 속 대주주 표심 확정  
국민연금 주총 안전검사 모녀 지지  
양측 현재 우호지분 차이 2% 점전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임종훈 형제 간 경영권 분쟁 속에서 대주주들이 표심을 확정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모녀 측과 형제 측의 지분 점전이 치열해 주총에서 예고된 표대결의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6일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전을 심사하고 한미사이언스 현 이사회인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안전을 지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 등에 '찬성'하고 이밖에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신규 이사 5명 선임 안전에는 전부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미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내놓을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다만 한미사이언스 현 이사회 측 안전이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

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국민연금 수탁위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지지로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42.66%의 지분을 확보하며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과의 경영권 분쟁 판도를 뒤집고 있다. 현재 양측의 우호 지분 차이는 2% 정도다.

기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특수관계자 등을 통해 확보한 지분은 각각 35%와 28.42%였다.

이어 한미약품 창업주(故)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을 공개 지지해 형제 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신동국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2.15%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40.57%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법원에서도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정당성을 얻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 통합 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전략기획실장)을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 보다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채택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주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이번 통합으로 해소되는 만큼 주가 상승을 막는 큰 장애물이 치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임주현 부회장은 최근 OCI그룹과 협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예약해 3년간 매각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

기도 했다. 임 부회장의 이같은 주주 가치 제고를 경영 제1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도 확인됐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 11일 주총 안전과는 별도로 회사의 주주친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함으로써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미사이언스의 핵심 정책으로 확정한다.

한편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도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문 중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진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을 짚었다.

한미 오너가의 경영권을 비롯해 신규 이사 선임 안전 등은 향후 한미약품그룹의 미래와 주주 가치를 좌우하는 사안으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형제 측의 입장이다.

결국 업계는 마지막 승부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0.5%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달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측 모두 소액주주 표심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종합 바디케어 브랜드 사위메이트의 바디워시 제품. /애경산업

## 애경산업 美 생활용품 시장 인지도 ↑ 지난해 매출 82% 성장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생활용품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올리고 있다.

애경산업은 2023년 자사의 생활용품 사업이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8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TJX 컴퍼니스에 납품한 매출은 2023년 기준으로 2022년 대비 80% 증가했다.

애경산업은 앞서 2020년 미국 대형 유통사인 TJX 컴퍼니스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위메이트, 케라시스 등 애경산업 대표 생활용품 브랜드가 미국 오프라인 시장에 공식 진출하게 됐다.

애경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사위메이트 바디워시 제품이 브랜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 롯데바이오, 미래 바이오인재 키운다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와 공동 협약  
바이오인재 위한 입문교육과정 개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산업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명문 대학과 협업에 나선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와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라큐스대학교는 1870년 개교한 미국 주요 명문 사립대학 중 한 곳이다. 총 13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돼 있

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시 호킬 뉴욕주지사 등이 졸업한 학교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라큐스대 재학생을 비롯해 국적, 성별,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바이오 산업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예비 바이오 인재를 위한 입문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과 인재를 채용하는 산업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자사 연구원들이 직

접 교안 작성 및 강의안 검수 등에 참여, 단순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특성, 실무경험, 산업 현황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시라큐스 대학교와 중장기적 산학협력을 이어간다. 시라큐스 대학교는 졸업생들의 바이오 업계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청하 기자



지난 25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켈트 시버루드 시라큐스 대학교 총장,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오른쪽부터)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 이랜드재단, '행복한 나눔식탁' 전개

다문화청소년에 비전·진로 수립

이랜드재단은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하랑센터에서 이랜드팜앤피드 오피스,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와 함께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나눔식탁'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랜드재단 이재욱 본부장, 이랜드팜앤피드 이제학 본부장, 본아이에프 홍은아 과장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자와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복한 나눔식탁은 이랜드재단이 지

난해부터 이랜드그룹 임직원과 비전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비전과 진로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시작한 공헌 활동이다.

이날 이랜드팜앤피드와 본아이에프는 외식·유통 부문의 직무 특강을 진행하며 다문화청소년과 상호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예술리 시그니처 등심 스테이크, 봉골레 크림 파스타, 본아이에프의 소갈비찜, 미니 장조림 등을 식나눔으로 후원하고, 임직원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함께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종근당건강, '팔사 리프팅세럼' 홈쇼핑 선봬

종근당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씨케이디 개런티드'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나선다.

씨케이디 개런티드는 '레티노콜라겐 저분자 300 팔사 리프팅세럼'을 신세계 홈쇼핑을 통해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팔사와 세럼을 일체형으로 설계해 처진 눈꼬리, 입꼬리, 턱부위 3중 처짐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콜라겐 부스팅 특허성분 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5, 연어샷 성분인 소듐디엔에이, 폴라겐하이드롤라이즈 드콜라겐추출물을 농축해 담았다.

씨케이디 '팔사 리프팅세럼'은 첫 출시 이후 약 70만개의 판매고를 올리며 매출 100억원 이상을 돌파했다.

특히 15그램 탄력세럼부문 1등, 2023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 리프팅 화장품 부문 대상, 2023 뷰티벨 슈퍼코스메틱 어워드 베스트 안티에이징 부문 1위 등 주요 뷰티 대상 3관왕을 수상하기도 했다.

종근당건강은 이번 신세계 홈쇼핑 진출을 기념해 단독 구성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 동아제약 박카스D 박스 패키지 '종이 손잡이'로 변경

동아제약이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피로회복제 박카스D 20병 제품의 플라스틱 손잡이를 종이 손잡이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그동안 박카스D 20병 박스 포장에 폴리에틸렌 소재의 플라스틱 손잡이를 적용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종이 손잡이 교체로 연간 약 25톤 이상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한 종이 손잡이는 외부 시험 기관 및 동아제약 자체 분석을 통해 강도 테스트를 완료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20년에도 박카스 비닐봉투를 재생 용지를 사용한 종이 봉투로 교체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박카스D 20병 박스 포장 '종이 손잡이'. /동아제약